

# 무소유는 철두철미하게 함께 나누는 공유



몇 백 년 지나니까, 다 사라지고 자취도 없습니다. 온 곳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사회에서 왔으니까 사회로. 그 사회가 공원을 만들든지, 빈민구제소를 만들든지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무소유 정신이 살아나지요.” 부처님이 깨달은 당처當處를 ‘0’이라고 한 《0의 행복》 저자 이규향 선생은 ‘0’을 중도中道, 본디 자리라고 이른다. 그와 같이 온 곳으로 되돌리는 게 자연스런 세상이치라는 말씀이다.

### 출가를 언제 어떤 계기로?

“저는 절에 공부하러 갔어요. 목표가 고시합격이었는데, 몇 년씩 끝 게 아니라 절에 가서 일 년쯤 백세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희 집 소작인들이 뺏겨온 새 지폐로 소작료를 내려 왔는데 마침 어른들이 나들이나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그 돈을 받았어요. 뺏겨온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튀었어요.” 그렇게 간 곳이 송광사였다. 석 달 치 방세를 미리 내고 방을 하나 얻었다.

“하루는 스님들이 다뤄요. 누더기를 입고 온 스님한테 스님 한 분이 ‘누더기를 날 주고 새 옷을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누더기를 입은 스님이 ‘스승에게 물려받은 옷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요. 바꾸자는 새 옷이 아주 좋은 옷이었어요. 명주에다가기가 막힌 건데 싫다고 다투더라고요. 한참 구경을 했죠. 결국 바꾸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좋은 옷을 준다는데 그걸 마다하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게 궁금해서 ‘눌러 앉자’ 마음먹고 송광사에 얘기하니까 처음엔 믿지 않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러 왔던 학생이 종이 된다니까. 며칠을 두고 거듭 우기니까 나중에 받아주더라고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종교가 필요한데 출가 지향이 아니라 재가 지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행자는 따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돈연 스님. 수도자라 부르든 목회자라 성직자라 부르든 그 자체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다. “수행은 누구라도 저마다 제 일터에서 자투리 시간을 써서 하면 돼요. 재가자로 만들어진 수행이 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스를 열자. 다 열여놓고 힘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거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 생각이었어요. 송광사를 가든 해인사를 가든 절에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70%에 공공이예요. 주거 공간은 한 20%쯤 됩니다. 나머지 10%는 절살림을 사는 사람들 공간이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시간엔 죽은 공간이예요. 국사를 모셔놓고 일 년에 한두 번 재를 지내요. 그 곳을 그냥 놔둬 까닭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게도 하고, 이벤트를 잔치를 해주는 공간으로 살아지죠. 쓸모없는 공간이 넘쳐나는데도 자꾸 뭔가를 지어대요. 쓸 방법을 찾지 않고. 경제논리에 어긋나요.”

79년도에 독일 유학을 가려고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던 돈연 스님은 송광사로 내려오라는 법정 스님 부름을 받고는 송광사에 내려가 교육을 맡았다. “거기서 또 스님을 육질 된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 돈연 스님은 수련회를 맡아 절을 출가자 중심

“장의 신부, 서강대 신학연구소 소장을 하고 나중에 서강대학교 총장을 했던 서인석 신부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어른들과 신학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레 봉은사 나들이 길에 법정 스님에게 소개해드렸어요.”

돈연 스님(66)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법정 스님과 친교를 쌓는 물꼬도 터드릴 만큼 다른 종교 가르침을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애썼다. 70년 대 중반, 베네딕도 수도원에 ‘불교는 심생즉중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이고, 심멸즉중종법멸心滅則種種法滅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법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모든 걸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나서 함께 탁마를 해보자’는 편지를 보냈다. 얼마 뒤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다녀가라는 초대장이 왔다. 법정 스님에게 여쭙더니 혼연히 다녀오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 “늘 그러세요. 제가 아주 어려운 책을 읽고 있으면 ‘재미없어 왜 그런 철학책을 읽고 그래?’ 하고 조크를 하세요. 그게 애정 표현이

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한 보름쯤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느님을 믿으면 천국이 이 세상에 있다는 체했었어요. 순전히 불교 방식으로 한 체험이예요. 그 나눔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믿으면 사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것만으론 안 되지요.”

### 스님 사상 원류가 어디서 시작하고

###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써야

10.27 법난 즈음, 돈연 스님은 총무원 교육국장을 맡았다. 계율 통합 계단을 만들어 제1회 통합계단을 통도사로 정했다. 네 분 스님을 모시면 성공이라고 했던 돈연 스님은 법정 스님, 지관 스님, 일타 스님, 흥법 스님을 모셨다. 전계 아사리(화상)는 자운 스님이었는데 그때 자운 스님은 법정 스님을 말과 행동이 같은 균형 잡힌 분이라고 평

를 했다.

법정 스님을 당신이 열정을 바쳐서 모셨던 분이라고 돌아보는 돈연 스님은 삶과 경전, 사회를 조화시키는데 그 이상 가는 승려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한다. “스님은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역사적식이 투철하신 논리에 딱 들어맞는 어른이셨어요. 정치발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회에다가 더듬이를 두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셨죠. 늘 조심스럽게 살고, 당신 그릇보다 더 크게 쓰고 간 어른” 이라면서, 법정 스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살다간 어른으로 CRM(고객만족 경영)은 물론이거니와 당신 만족경영도 잘하셨다고 말씀한다. 돈연 스님은 법정 스님 임적 뒤에 나온 책이나 글들이 스님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깊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법정 스님 사상 연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승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자유사상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아주 굳었던 법정 스님. 수행자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임을 깨달아 무소유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 스님들 새 옷 싫어 다투는 모습에

### 고시공부 왔다가 송광사에서 출가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돈연 스님은 지인을 통해, 김상사를 꼭 종단으로 귀속시킬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무소유는 마치 길처럼, 철두철미하게 함께 나누는 공유共有다. 길이야 공산주의자도 지나가고 민주주의자도 지나가고 여자건 남자건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송광사로 귀속되나, 법정 문도가 갖나 거기서 거기다. 세상 곳곳을 해서 모든 재산을 내놓은 분은 불교에서 가져가면 많은 사람들이 좋게 쓰리라는 생각에서 보시했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도 많으니까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 삶터가 장터가 되도록 일반 사회단체에다 기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세상을 뒤바꾸 부처님 성지도 초라해요. 석가모니가 몇 천 명 앞에서 법을 설했다는데 시간이 이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밑받초

### 一人一燭 연꽃밑받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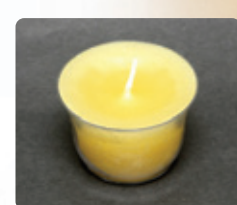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1인1축 연꽃밑받초**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과 밑받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축 연꽃밑받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밑받초 배치모습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밑받초 교체형



디자인특허출원

제30-2011-0010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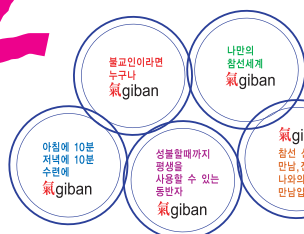
제30-2011-0010355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기반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불삼 / 02)2004-8216

동행 053-01-298062 (주)현대불교인문사

에서 재가자들도 함께하는 수행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옛날 수련회는 학교에서 불교 학생들이 교수 모시고 4박5일 동안 한두 차례 얘기를 듣고 산이나 타고, 스님들한테 한 두 차례 강의 듣고 마는 노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한테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그해 여름 송광사에 수련회를 신청한 학교가 일곱 개 학교였는데 불교학생회장들을 불러 앉혀놓고 '사막오일 출가'라고 제목을 붙이고 수련회 프로그램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면 장소 빌려주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숙대, 이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만 참가했어요." 교육원장이었던 법정 스님을 모시고 동참자 모두에게 승복 만들어 입히고, 발우공양을 시키고, 법문 듣고, 참선도 하게 해 수련회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켰다. 그 뒤로 송광사 수련회는 수련대회 기준이 되었다. "템플스테이 원조지. 그때 템플스테이 구상까지 다 해놓았어요."

아이에게 재밌고 맛있는  
어린이 경전이 필요하다

1987년 돈연 스님은 황성 스님, 강연심씨와 함께 '고요한 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람들이 초기경전에 눈을 돌리게 이끌었다. 그리고 이듬해 '경전읽기모임'을 만들고 이어 경전연구소를 만들어 초기불경인 빠알리 경전 번역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원전을 정확히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턱없이 모자란 현실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앞선 데 달진 격으로 1992년 연구소에 불이나 안타깝게도 번역한 원고가 모두 타버렸다. 망연자실. 하지만 돈연 스님은 폐허 위에서 추스르고 마음을 모아 다시 경전을 번역하는 일을 이어왔다. "제가 새로운 불교운동을 할 만큼 행동주의자도 못돼요. 시를 쓰고 철학을 하는 가운데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모든 걸 다할 수는 없으니 번역 일 만큼은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전연구소를 만들고, 사업을 해서 조그만 이익이라고 얻으면 거기에 써드립니다. 경전은 승려들을 위해서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역경 사업은 용성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한 일을 필두로 윤희 노장 스님 염원에 힘입어 법정 스님을 비롯한 돈연 스님, 그밖에 여러 어른들이 꾸준히 애써서 바탕 위에 뿌리내리고 꽃을 피웠다. 이제 부처님 육성이 고스란히 담긴 빠알리 경전도 여러 곳에서 번역되어 나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부처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돈연 스님 경전 번역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가고, 6학년에서 중학교로 가는 때에 읽을 경전을 만드는 게 제 바람예요." 아이들이 재밌고 맛있어할 경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어린이 경전 만드는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돈연 스님. 뒤장 만드는 사업도 부진한 지금, 어린이 대장경 만드는 일을 이어가기 쉽지 않고 힘에 부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기에 돈연 스님은 한발 한발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딘다. 앞날 부처님을 위해. 이 소중한 도타운 맑고 향기로운 사업을 함께할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돈연, 그는 과연 누굴까?**  
뒤장 향아리는 파리나 다른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창이나 광목으로 덮는데 올하는 흰 것을



스님은 머리를 깎았다가 다시 길렀다. 왜 그랬는지 속속들이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포함해 얼굴에 깊게 잡힌 주름이 유난히 굵은지 조금은 가능할 수 있다. 나 역시 주름이 늘었기 때문이다. 스님의 얼굴이 자연스레 다가오고 웃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모습도 그렇게 다가온다. 처음 스님을 만났을 때 어려움으로 생경했었다. 시간이 생경함을 지웠다. 법정 스님은 아직도 친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제일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말이다. 언젠가 스님도 내게 다르게 다가 올 것이다. 돈연스님처럼...

모두 벗겨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소창을 440마를 끊었다. 동그랗게 잘라서 박음질을 해 고무줄을 끼우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집을 다녀간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 천을 자르거나 재봉질, 고무줄 끼우는 일에 동참해 주었다. 말이 1500 개지 정말 많았다. 드디어 일을 끝내고 흰 달걀을 벗겨내고 새 달걀을 덮었다. 팔이 떨어지듯 아팠지만 다 덮고 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흐뭇하게 향아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다.

"어머, 지금 막 달걀을 다 덮었는데, 고무줄을 끼웠더니 훨씬 깔끔하다."

여러 사람 도움으로 일을 마치고 내심 '참 애썼구려.'라는 칭찬을 기대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아니, 이게 삶이 아니잖소. 혹시 소창에 묻어있는 표백제가 뒤장에 달기라도 하면 어찌되지 않소?"였다. 나도 이걸 삶아서 덮을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달걀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소금을 엮기 때문에 문제없으리라고 여겼다. 뿐만

아니라 달걀을 다 빨아서 넣어 말릴 일도 만만치 않았기에 어차피 방충망 구실일 뿐, 향아리 위에 덮는 건데 별일이 있으랴 싶었다. 남편은 향아리를 한 바퀴 돈 뒤 말했다.

"모두 견어서 삶으시오." 그뿐이었다. 너무나도 짧은 한 마디.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 매정함이라니. '제기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이게 웬 시집살이람! 아 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짧았다." 도원녀 님이 쓴 책 <남편 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아니더라>에 나오는 꼭지다. (지난 연재 <영혼의 모음> 첫 발행일이 1993년 1월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주인공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움이다. 하늘의 영롱한 별을 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세어 보던 일, 여름밤에 모깃불을 피워 놓고 바턴 기쁨을 하며 뿌연 연기에 눈물을 짜던 일, 땀이 서리를 하다 주인에게 들켜 나란히 서서 서머하던 일, 눈 내린 밤의 기적소리, 은죽(銀竹)이 쏟아지는 여름날 물길 따라 오르고 있는 미꾸라지를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일이다. 이 모두가 사실(私說)이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속단하기엔 그저 그리움으로 남는다.

삼국통일의 기수 장군 김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향마을을 지났다. 대열에서 조금 벗어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나, 김유신은 부하를 시켜 자기 집에 간장을 좀 얻어오라고만 했다. 장군은 마상(馬上)에서 간장을 마셨다. 그 간장 맛이

골라 주머니에 넣었다. 서암연 스님은 뒷전에서 구경만 하다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알을 집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훌쩍했다. 선에서는 곧 잘 소를 등장시키곤 한다. 심우도가 그 좋은 예이다.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기우귀가(騎牛歸家)'의 모습에서 여유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소는 느리지만 천리를 가고 토끼는 제아무리 빨라도 심리도 못 간다.

주인공(主人公)은 우리 마음에 내재한 참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참마음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불성이고 진심(真心)이다. 여기서 '주인공'과 '예'를 구별해 주인공이 주(主)가 되고 예는 객(客)이 된다고 알아서는 큰 잘못이다. 화두를 챙긴다는 것도 챙기는 나와 화두 사이에 처음에는 주객의 관계로 마주하나 중국에 가면 나와 화두가 하나가 되는 경지가야말로 산 공부다. 이러한 경지를 초월이라고 한다. 그런데 초



화두가 하나 되는 경지가 참공부  
각자의 주인공을 바로 알아야

예와 다름이 없는 것을 알고 노모가 여전하심을 믿었다. 맛의 그리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숭이의 뇌는 300cc이고 인간의 뇌는 1500cc라고 한다.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을 잊고 사는 현대인 모습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송나라 무문 스님은 속성이 양(梁)씨이고 항주(杭州) 사람이다. 1229년 <선종무문관>을 발행했다. 스님은 점심공양시간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활연대오했다. 공안 48칙이 실려 있는 <무문관> 제12칙은 '암환주인(巖喚主人)'이다. 서암연(瑞巖彦) 스님은 매일 스스로를 "주인공!"하고 부르고, 스스로 "예!"하고 응답했다. 이내 말하기를 "정확히 오도에 이르렀는가?" "예." "후일에 남에게 속지 말라." "예.", "예."

스님은 천성이 둔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멍청구린인지 천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둔패기였다. 그래서 도를 이루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눈총겨나 받았던 모양이다. 어느 날 신도집에 공양청을 받아 갔을 때, 함지박에 진주를 내놓으며 스님들에게 골라 갖도록 했다. 여러 수좌들은 다뤄가며 맘에 드는 알을

월에만 머무른다면 공(空)에 떨어진 것이다. 선에서는 나공(空)을 무척 꺼린다. 초월했으면 당연히 너와 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왔다는 초월에 이르고 초월했다는 다시 되돌아온다. 이러한 순환 과정이 없으면 죽은 고목에 지나지 않는다. 바다에 밀물과 썰물의 순환이 없다면 생명의 순환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순환은 창조를 낳는다. 순환은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을 생각한다. 자귀의 법등명(自歸依法燈明). "비구들이!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그리고 진리의 불을 밝혀라." 혹시 어느 독자는 우리 절, 우리 스님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서암연 스님이야말로 말로 자신에 의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깨어있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서든 사람은 자신을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일생 하늘을 이고 살면 서도 하늘의 높이를 모르고 일생 땅을 밟고 살면 서도 땅속 깊이를 모르고 산다. 백년 양보해 그도 좋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각자의 주인공 아니던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 백초귀장술

##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연주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볍고 설치 용이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사리함

SMD LED 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 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 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 전구(정품) 220V용**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 (정품)**

-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